

- 이경하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  
—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 황지현 여성 반동인물에 대한 보복살인과 그 정당화 과정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장영은 임시정부의 밀사  
—정정화의 독립운동과 자기 서사
- 안서현 부성적 역사와 극복의 알레고리  
—박화성의 신문연재소설과 4.19
-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  
—감정의 재배치와 국민만들기
- 정혜진 광주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정희의 제3세계 휴머니즘 수용과 민중시의 재구성(1)
- 박성은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 신주진 공간침입자의 모험과 도발  
—「풍문으로 들었소」의 경우
- 홍은영 희곡 『햄릿』(*Hamlet*)의 성차별적인 단어에 대한 번역 분석

#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

—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이경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목차

- 1 머리말
- 2 여성이 한문책을 읽는 방법: 한문과 언문 사이
- 3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한문에 깃든 언문과 구술성
- 4 여성 대상 기록의 정형성과 구술성
- 5 맺음말

본고는 여성생활사자료집과 기타 자료들에서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을 구술을 중심으로 살피는 데 목적이 있고, 이로써 한문, 언문, 구술의 상관성을 생각해보려 하였다. 특히 심육과 권만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문과 언문과 구술의 사이를 생각하였다. 남성의 한문 글쓰기가 인용이나 번역, 구술을 포섭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경우 그 배움의 단계부터 한문, 언문, 구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문과 언문은 같은 문자이지만, 한문은 보다 문자문화에 가깝고 언문은 구술문화에 더 가깝다. 여성의 말이 행장 등에 한문 문자로 고착될 때는 부덕이나 ‘번다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형되는데, 언문은 문자문화이면서 구술문화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에 관한 상투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오히려 정형화를 추구하는 구술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했다.

국문핵심어: 여성생활사자료집, 한문, 언문, 구술, 구술문화, 문자문화

### 1 머리말

한국여성문학학회와 한국고전여성문학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학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고, 관련 프로젝트도 성과물을 다수 출판했다.<sup>1</sup> 고전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여성생활사자료집인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자료정리가 이루어졌다.<sup>2</sup> 여성문학사가 여성사와 떼어 수 없는 만큼, 여성생활사자료집의 활용도를 높여 자료집의 서문에서도 밝힌바 여성의 미시적, 생활사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 1 이경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정체성과 지구화 시대의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9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 2 김경미 외 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5』, 서울: 보고사, 2006;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서울: 보고사, 2009;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 서울: 보고사, 2013.

조선 여성의 언어문자생활<sup>3</sup>이 언문<sup>4</sup>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면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종종 지적되는 것이 여성의 식견인데, 그 ‘식견’의 원천은 무엇인가?<sup>5</sup> 그리고 여성의 글과 달리 말에는 별반 주목하지 않는데<sup>6</sup>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구술의 양상은 어떠한가?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한문과 언문과 구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본고의 주된 관심이다.

일찍이 백두현은 인간을 중심으로 여성의 문자생활에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 교육서, 한글 음식조리서 등도 연구대상이었는데,<sup>7</sup> 주로 실증적인 작업이었고 구술이나 한문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경하는 17세기 사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장 등에 자주 동원되는 관용구, 즉 ‘총명해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다’, ‘비록 문자를 배우지는 않았지만’이란 단서가 붙지만 ‘식견’이 강조되고, ‘남자 형제의 어깨 너머로 배웠다’, ‘네가 남자였다면’과 같은 공식구, ‘여사(女士)로 불렸다’는 총평, ‘글은 여자의 일이 아니다’, ‘죽기 전에 원고를 태워 없앴다’는 자기검열을 밝힌 바 있다.<sup>8</sup> 또한 여성의 한문생활, 언문생활을 따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는 기존에 한문, 언문, 구술을 별도로 생각하는 관념을 고착

- 
- 3 언어문자생활이란 이하 논문에서 제기한 ‘어문생활’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글쓰기, 글읽기, 말하기, 듣기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4 본고에서 ‘국문’ 대신해 ‘언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통사회에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비하와 같은 다른 의도가 없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 5 이 문제에 천착한 것이 이하의 논문이다. 그런데 『열녀전』과 같은 글에서 유명한 ‘말 잘하는’ 여성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보완의 성격을 갖는다. (이경하,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6 글보다 말이 분석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학술연구 자체가 쓰기 활동이고, 쓰기에 편입된 이른바 ‘2차적 구술성’은 순연한 ‘1차적 구술성’과는 다르다.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2쪽) 윌터 J. 옹의 다른 책이 최근 시선을 끌지만 더 저명한 책을 인용한다. 옹의 사상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이하의 책에 상세하다. (윌터 J. 옹, 이영걸 역, 『언어의 현존』, 탐구당, 1985)
  - 7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45권,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06 :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97권, 진단학회, 2004.

한다고 본다.

그리고 18세기 여성 글쓰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 김경미는 먼저 이덕수의 어머니 청송 심씨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18세기 여성 글쓰기의 네 가지 층위를 이렇게 제시했다. 비록 흔적으로만 남지만 가족의 행장이나 행록의 초안을 쓴 것, 풍양 조씨의 〈자기록〉이나 남원 윤씨의 〈명도자탄사〉 같은 자전적 글쓰기, 규방가사와 한시로 시 쓰고 노래하기, 그 수가 적긴 하지만 임윤지당(1721-1793) 같은 학문적 글쓰기나 상언(上言)의 형태를 띤 정치적 글쓰기와 같은 공적인 글쓰기가 그것이다.<sup>9</sup>

한편 최기숙은 여성 대상 제문이나 비지문 등 남성의 한문 글쓰기가 인용이나 번역, 구술을 포섭했음을 보였다.<sup>10</sup> 구술을 지적한 것은 탁견인 듯하나, 여성의 말이나 글의 인용이나 번역은 당시 축약이 일반적인 듯하고,<sup>11</sup> 언문이 문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sup>12</sup> 구술이 단지 한문 글쓰기에 직접인용된 것만이 아니다. 구술의 특성<sup>13</sup>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축약은 단지 내용의 길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 사대부의 검열이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성 사대부가 보기에 쓸데없는 내용이나 너무 번다한 것은 제하고 고인인

---

8 “자료 440여 편 가운데 대상 인물의 중복을 감안할 때 한문생활에 관한 언급이 단편적이라도 있는 경우는 약 20% 정도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세 번째 단계에 속한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란 한문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로, 한문에 관한 언급이 소략하고 대신 언문에 관한 정보가 언급되는 사례들을 말한다. (이경하,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제140권, 국어국문학회, 2005, 116쪽)

9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0 최기숙,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구술적” 포용성」, 『古典文學研究』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11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정우봉,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巾車志)』 연구(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75-177쪽)

12 이에 대해서도 후술한다. 최기숙은 다른 논문에서 스피박이 언급한 ‘하위주체’ 표현과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역설적 질문을 차용하였는데, 문자 생활이 더 고차적이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듯하다. (최기숙,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書·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제176권, 국어국문학회, 2016, 126쪽, 각주 21번)

13 구술문화의 일반적 특징은 윌터 J. 옹, 앞의 책, 60-92쪽 참조.

여성을 칭송할 만한 내용만 간단히 적는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문, 행장, 묘지문 등이 고인의 부덕을 칭송하고 미화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데 대한 비판과 경계는 18세기 후반에 이미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목(1739~1799), 심노승(1762~1837)이다.<sup>14</sup> 그래서 그런지 김정목의 여성 대상 글은 별로 없고, 남에 의한 기록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배지에서도 자기서사에 열심이었던 심노승의 글은 첫 번째 아내에게 물려 있다.<sup>15</sup> 김정목의 비판을 보자.

○ 세상의 남편 되고 아내 된 자들을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서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문득 군자요 바른 사람이 되고, 또 문득 정숙한 여자, 현숙한 부인이 된다. 그리고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서 이리저리 눈을 현란하게 하여 진짜와 가짜를 바꾸고 검은 것과 흰 것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으나 놀랄 것도 없다.<sup>16</sup>

이처럼 매너리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사실에 의거해 써야 한다는 자각도 남성 문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고인을 직접 안다고 강조하고,<sup>17</sup> 가족이 써준

---

14 박무영, 「18세기 祭亡室文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제32권, 한국한문학회, 2003, 333쪽.

15 정우봉, 「심노승의 『南遷日錄(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제52권, 한국한문학회, 2013, 266쪽. 심노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눈물이란 무엇인가』(김영진 역, 태학사, 2001)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16 “抑又念世人之爲夫爲妻者, 視其行, 直猥褻可臭, 而厥或一死, 則忽然爲君子正人, 又忽然而爲貞女賢婦. 巧筆工辭, 縱橫炫耀, 矯飾眞僞, 變幻黑白, 滔滔焉率爲常而莫之駭焉.”(김정목, 「祭亡室黃氏文」, 『過齋遺稿』 卷10, 『韓國文集叢刊』 卷255)

17 묘지명은 흔히 당대 저명한 문인에게 부탁하지만, 그 기초자료가 되는 행장 등은 고인의 가족이 많이 쓴다. 여성이 쓴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묘지명이나 제문을 쓰는 문인도 가족이 아니라도 처제라든가, 조카라든가, 친한 벗의 아내라든가 등등, 고인과 자신의 평소 친분을 글에 밝히는 경우가 있다.

글이나 말을 참고했다 밝히고, 다른 사람의 평을 인용하기도 한다.<sup>18</sup>

○ 사사로운 사랑으로 한 마디라도 지나친 말을 써서 감히 대군자(大君子)의 이목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니<sup>19</sup>

○ 그러나 진실로 내 글이 속이지 않았다면 어찌 글을 꼭 부탁해서 해야겠는가.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망자에 대해서 사사롭게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혹 믿건 믿지 않건 진실로 따질 만한 것은 아니다.<sup>20</sup>

○ 도리어 혹 빠뜨리기도 한 것은 진실로 있을지언정, 감히 털끝 하나라도 미덕을 과장하여 안으로 어머니의 행실을 왜곡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았다.<sup>21</sup>

그래서 고인에 대한 글은 독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지 미화인지 사실인지 알기 어렵다. ‘재구성된 역사’인지 ‘사실’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기록하는 자이고 여성은 죽음을 계기로 기록되는 자이다. 그리고 대개의 여성은 다른 기록이 별로 없다. 『한국문집총간』의 남성문집을 근간으로 한 여성생활사자료집의 제문, 행장 등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것이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향을 보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17-18세기 어머니 관련 여성생활사자료집이고 간혹 다른 자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17세기 김만중의 어머니 행장이 워낙

---

18 여기서 주로 망자의 주변인들의 증언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인용된 증언, 구술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19 “非敢以鍾愛之私，一毫溢辭以誣大君子公聽也。”(김수항, 「亡女行蹟」, 『文谷集』 卷22, 『韓國文集叢刊』 卷133)

20 “然則苟吾書之不誣，何必丐爲，吾非敢少私乎 亡者也，人或信不信，固無足計也。”(임희성, 「亡室淑人宜寧南氏墓誌」, 『在潤集』 卷3, 『韓國文集叢刊』 卷230)

21 “反或漏沒，則誠有之矣，不敢一毫溢美，內以誣其親，外以欺乎人。”(김창집, 「淑人豐壤趙氏行狀 代作」, 『圃陰集』 卷6, 『韓國文集叢刊』 卷176)

유명하지만, 글이 한 편밖에 안 된다. 그밖에 김수항의 딸 대상 제문 등이 유명해 함께 다룬다. 오빠들의 그 여동생 관련 글<sup>22</sup> 등 이 여성은 죽어서 가장 많은 글을 받은 여성으로 유명하다. 고인이 된 여성 대상 기록의 매너리즘을 비판했던 심노승의 아내 관련 글은 모두 24편인데 역시 함께 검토하였다.<sup>23</sup>

## 2 여성이 한문책을 읽는 방법: 한문과 언문 사이

조선 여성이 한문책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문과 언문의 관계가 단지 번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자가 없는 한시를 현대인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성에게는 그런 방식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었다. 먼저 언문을 이용한 한문 번역 초창기를 보자.

소혜왕후의 내훈 116조목이 소학·열녀전 등에서 발췌한 것임은 서문과 발문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그 중 70%가 소학에서 왔다고 했다.<sup>24</sup> 소혜왕후는 한문으로 된 고전을 언해하여 일반에게 퍼는 것이 목적이라 했다. 그 언해란 것이 곧 한문에 언문으로 토를 다는 것이다. 내훈이 참고한 문헌을 발췌 인용하고 출전을 명기하는 방식을 제2 효친장(孝親章)을 예로 들어 먼저 살펴보자.

○ [內訓-孝親章-11-1] 內則에 曰호디 父母 | 有婢子若庶子庶孫을 甚愛之어 시든 雖父母 | 沒호샤도 沒身敬之호야 不衰호리라. 子 | 有二妾을 父母는 愛一人焉호시고 子는 愛一人焉이어든 由衣服飲食과 由執事를 母敢視父母所愛호야 雖父母 | 沒호샤도 不衰호리라.

← [小學-明倫-16]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 甚愛之, 雖父母沒, 沒身敬之

22 당대 문장가로 이름 난 둘째 오빠 김창협은 〈祭亡妹文〉, 〈再祭亡妹文〉, 〈亡妹遷窆葬祭文〉, 〈亡妹哀辭〉 등 4편의 글을 남겼고, 김창흡은 〈祭亡妹文〉, 〈亡妹生日祭文〉, 〈亡妹大祥祭文〉 등 총 3편의 제문을 썼다.

23 여성생활사자료집 외에 다른 자료가 첨가되는 것이 이 경우다. (박다원, 「심노승 도망문(悼亡文)에 나타난 죽음의 수용 양상과 그 의의」, 『국학연구론총』 제22권, 태민국학연구원, 2018 참조)

24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2쪽.



不衰. 子有二妾, 父母愛一人焉, 子愛一人焉, 由衣服飲食, 由執事, 毋敢視父母所愛, 雖父母沒, 不衰.

내훈-효친장의 11-1 문장을 내훈이 참고했다고 서문과 발문에서 밝힌 ‘소학·열녀·여교·명감’에서 찾아보면, 소학-명륜편(明倫篇)의 16항목을 문장 그대로 전재(全載)했다. 그런데 내훈-효친장 11-1은 소학을 언급하지 않고 ‘내칙(內則) 왈(曰)’이라 썼다. 소학-명륜편의 16은 예기-내칙편의 일부를 직접인용한 것이니, 소혜왕후는 소학에 인용된 예기를 재인용한 셈이다.<sup>25</sup> 소학은 조선 사족 여성들이 많이 봤다고 알려진 책이다.<sup>26</sup>

소학은 한문으로만 된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내훈은 한문과 언문이 섞여 있다. 내훈이 언해한 방식은 지금도 한문을 한국인이 읽는 방식이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한문에 음사 또는 토씨를 달아 읽는다. 정확한 문맥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토를 단 것을 들으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문에 구결을 달아 번역하는 순서를 정한 것은 조선 남성 문인도 마찬가지고 오랜 전통이었다고 한다.<sup>27</sup> 한자를 알지만 한문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조선 사족 여성의 경우, 토가 있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읽기가 아닌 듣기에서도 문맥을 이해하기 쉽다.

김인후가 편찬했다는 『백련초해(百聯抄解)』의 두보 <만흥(漫興)>을 보자. 이 책은 『천자문』을 익히는 초학자를 위한 것이라 음사와 언해를 했다.

穆參逕경楊양花화鋪포白빅氈전  
點뎨溪계荷하葉엽疊疊靑靑錢錢  
길헤 브드뎨는 버들고지 흰 시우글 썩랏고

25 위의 책, 13쪽.

26 제문 등에 자주 언급되는 옛 선현의 언행이란 것이 곧 소학의 주된 내용이다.

27 이종목,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제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60쪽. 이 논문은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한문 번역의 다양한 실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내해 덤터는 년니피 프른 도날 텃ㅎ얏도다<sup>28</sup>

한자 문화권에서 시학의 근원이 되는 『시경』도 조선 중기에 언해되어 판각 또는 필사되었다. 온전한 『시경언해』 외에 초록된 언해본도 다수 발견되었고 초역본의 수요가 조선 후기에 상당했다고 한다. 한시 아닌 한문책도 많이 언해되었다.<sup>29</sup> 18세기 중엽 필사본으로 알려진 『고문진보언해』는 『고문진보』를 한문 원문과 함께 발췌 번역한 것이다. 김석주의 『고문백선(古文百選)』도 그러한 예이다.<sup>30</sup> 사족 여성들이 한문학적 소양이 깊다면, 한문책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깨너머 배우거나 들어서 알았다는 건 이런 언해서이거나 토가 있는 한문책이었을 것이다.

춘 하늘의 히빋치 저므니  
쇠잔흔 히 석귀 구롬의 비취여도다  
대그림지논 바람을 마자 움죽엿고  
미화향기논 돌을 싹ㅎ여 들니논도다  
잔잔흔 냇물은 돌의 소리 나고  
관관흔 시논 무리롤 브르논도다  
벗이 이셔 수혹(문수니라말)을 숭상ㅎ니  
째로 와서 주셔이 글을 강논ㅎ난도다  
〈춘 하늘(寒天)〉

이것은 김호연재(1681-1723)의 한시를 언해한 〈호연지유고〉의 일부이다.<sup>31</sup> 한시를 한자 없이 언문으로만 향유한 것이다. 즉, 한시의 운에는 관심이 없

28 이 시는 위의 글, 63쪽에서 재인용했다.

29 여성이 많이 읽었다는 한문책은 이경하,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제140권, 국어국문학회, 2005, 109쪽 참조.

30 이종목, 앞의 글, 63-67쪽.

31 이 시는 위의 글, 71쪽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한문으로 된 원시는 “寒天歲色暮, 殘照暎疎雲, 竹影迎風動, 梅香伴月聞, 潺潺溪響石, 款款鳥呼群, 有友崇詞學, 時來細講文.”이다.

고 뜻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sup>32</sup> 한자 없는 한시의 향유가 조선 후기 여성들 사이에 일반적임은 여성들이 많이 읽었다고 알려진 한글 장편 소설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sup>33</sup>

### 3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한문에 깃든 언문과 구술성

서론에서 최기숙은 여성 대상 제문이나 묘지명 등에서 한문이 인용이나 번역, 구술을 포섭했음을 보였다고 했다.<sup>34</sup> 여기서는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주로 어머니 관련 제문, 행장 등을 본다. 부모의 행장을 남기는 것이 효의 일환이었고 가문의 식을 고취하는 한 방편이었다. 어머니를 일찍 잃어 생전 모습을 몰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어머니가 시집오기 전의 모습은 친정 식구들에게 묻는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언문이나 고인의 주변인들의 구술이 끼어든다.

○ 고모님이 손수 써서 일러 주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올케는 겨우 열네 살에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다. (...) 나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케를 따라다니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직 기억이 뚜렷하다. (...) 세속 부녀자들 사이의 비속하고 자잘한 일이나 사치스런 풍조에 대해서는 비록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올케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고모님이 또 이렇게 일러 주셨다. (...) 올케는 일찍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제가 이미 고생은 할 만큼 했고 아직 어린 자손들이 많습시다. 만일 계속 이와 같다면 끝까지 성취가 없을 터이니, 비록 세상에 오래도록 산다 한들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 이상은 임인년[1722]에 육(鑄)이 고모님께 청하니 손수 언간 여러 장을 써서 보여주셨기에 육이 스스로 전하여 기록한 것

32 호연재의 여성문학적 성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무영, 『호연지유고』와 18세기 여성문학, 『열상고전연구』 제16권, 溯上古典硏究會, 2002 참조.

33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0-70쪽.

34 최기숙,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구술적” 포용성』, 『古典文學硏究』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참조.

이다.<sup>35</sup>

고인 전의 이씨(1664~1698)는 이만겸의 딸이고 심육의 어머니이다. 14세에 심수현에게 시집갔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고모의 ‘수교(手敎)’를 인용하는 방식이고, 후반부는 심육이 기술한 부분이다. 전반부의 서술자는 심육의 어머니를 줄곧 ‘형’이라 지칭하는 심육의 고모이다. 전반부에 고모의 수교를 인용한 부분은 1722년에 심육의 고모가 써준 언간을 심육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고모가 세상을 떠난 1743년에 그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 심육의 기록이 수교 말미에 첨부되어 있다. 이 글은 한 편의 완결된 행장이나 유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 편의 행장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실질적인 과정을 짐작케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에 실린 수교에서 심육의 고모는 어려서부터 보아 온 둘째 올케에 관한 기억을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고모에게 이씨 부인은 올케이자 언니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다. 고모의 언간에서 죽은 올케에 대한 시누이의 애정과 신뢰가 느껴진다. 평소에 시누이에게 전의 이씨의 남편에 대한 푸념이 직접인용 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실재에 부합한 것인지는 모른다. 고모가 써준 언간을 심육이 한문으로 번역·축약하면서 어떤 변형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와 비슷한 예를 또 보자.

○ 이어서 불초자를 책망하며 말씀하셨다. 네 어미는 평소 네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 싹을 심고 가을을 바라듯 했다. 네가 예닐곱 살 되었을 때 벌써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입으로 가르쳐주었지. (...) 그때 여러 외숙에게 정묘년 이전의 일을 적어 달라고 청했었는데, 외백모 김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아이고, 우리 시누이의 일을 소상

35 “姑母手敎曰：兄年甫十四歲而歸吾家 (...) 吾雖年幼，而常肩隨而行，受兄之撫愛甚至，故所能記有者，尙分明矣。 (...) 世俗婦女間俚瑣之事，浮華之習，雖於平日話言之際，吾未曾一聞之也。 (...) 嘗謂余曰：“吾既備嘗艱難，而子姓又多不育，若一向如此，畢竟無所成就，則雖或久視於世間，亦何益。” (...) 曾在壬寅年，銷請于吾姑母，以手書謄簡數紙示之，而銷所自傳錄者也。”(심육, 「先妣贈貞敬夫人李氏遺事」, 『樗村遺稿』卷44, 『韓國文集叢刊』卷207)

히 아는 건 이 노인네만한 사람이 없지.”라 하고 마침내 언문으로 여려 장 편지에 세세히 적어서 불초자에게 보내주셨다. (...) 아아, 내가 늙어서 정신이 혼미하여 네 어머니의 일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작은 기록에는 단 한마디도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시험 삼아 이것을 가지고 네 어머니 영전에 고하여 물어 보아라. 영혼도 얹어 있다면 내가 무고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 김부인의 작은 기록이 사실에 가깝고 자세하나 부녀자의 말이란 번다하고 중복되어 조리가 없다. 이에 감히 조금 윤색을 더하여 간략하게 하되 보태지는 않았으니,<sup>36</sup>

권만의 어머니 풍양 조씨(1665~1697)는 조계윤과 진성 이씨의 딸이며 권두광의 아내이다.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 권만을 비롯해 4남 1녀가 모두 어려 10세 이하였다. 권만은 1715년 28세 때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와 외백모가 써준 언간을 토대로 어머니의 행록을 짓기 시작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 뒤에 글을 완성했다.

이 글은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와 외백모가 해준 이야기와 언간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백모 김부인, 즉 올케가 시집왔을 때 시누이가 다섯 살이었다고 했다. 권만은 부녀자의 글이 번다하고 조리가 없어<sup>37</sup> 한문으로 옮길 때 간략하게 윤색을 했다고 밝혔다. 구술과 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심육이 쓴 어머니 유사와 형식이 유사하며, 올케가 죽은 시누이를 위해, 혹은 시누이가 죽은 올케를 위해 쓴 언서가 선비행장의 기초 자료가 되고

36 “仍又責不肖曰：“若母平日望汝成立，若種苗而望秋，汝年六七，已口授王勃滕王閣序（…）既乃抵諸舅，請錄示丁卯以前事，外伯母金夫人聞之曰：“嗟乎！詳吾少姑事，莫老物若也。”遂以諺字連牘細書，以寄不肖曰：（…）嗟乎！吾老悖，不能詳記若母事，而今此小錄，無一辭迥實，若輩試以是錄，告質于若母氏靈，靈如有知，不以我爲誣（…）金夫人小錄，稍似詳悉，而婦人之言，煩復無條理，茲敢稍加修潤，有略無增，”（권만, 「先令人豊壤趙氏行錄」, 『江左集』 卷9, 『韓國文集叢刊』 卷209）

37 조선에서 여성의 글에 대해 ‘번다하다’는 평은 늘 있었다. 그런데 장황하고 ‘번다함’도 구술성의 특징 중 하나이다. (윌터 J. 옹, 앞의 책, 65쪽.) 반면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문자문화의 특징이다.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여성 언문의 번다함은 곧 말의 번다함의 연장이고, 한문의 윤색과 축약은 앞서 말했듯이 남성 문인의 검열일 뿐 아니라, 좀 더 문자문화에 가까워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언문은 말을 글로 옮겨 보다 말에 좀 더 가깝게 보인다. 언문이 표기상으로는 문자문화에 속하지만, 조선에서 언문은, 특히 정식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번다한’ 언문은 말과 같은 구술문화에 더 가까워 보인다. 즉 언문은 문자문화에 속하면서 동시에 구술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문자문화에 속하는 한문 문장은 언문이나 말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추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구술문화는 그렇지 않다.

친척들에게 ‘어진 부인’, ‘규합에 모범’ 소리를 듣는 풍양 조씨는 아들 교육에 열심이었던 모양이다.<sup>38</sup> 위 인용문에 나오듯, 풍양 조씨는 아들 권만에게 <등왕각서>를 입으로 가르쳐주었다고 했다. 평소 문자를 꽤 알아 여중군자(女中君子) 소리도 들었다는<sup>39</sup> 풍양 조씨가 정말 입으로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대 관행상<sup>40</sup> 한자를 직접 읽고 쓰며 가르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입으로 가르쳤다는 말이 허언은 아닐 것이다. 17세기 자료를 하나 든다.

### ○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문자를 배우지 않았지만 본래부터 식

38 “汝時不解一字，而記性甚敏，能熟誦不錯，若母喜甚，爲汝買十九史首卷蘭亭大帖，欲汝肄習甚切，而吾少年計拙，不能爲家，常托汝母子於若母兄弟，尙州距吾鄉二百里，吾鞍馬還往，無數月安歇，不能課授若學，若母大悶，常有汝失學之憂，爾獨奈何一向頽棄，以負汝死母之望也。”(권만, 「先令人豊壤趙氏行錄」, 『江左集』 卷9, 『韓國文集叢刊』 卷209)

39 “小姑平日頗解文字，而未嘗發口言之，吾娣常戲語小姑曰：“子若爲男子，必爲一代聞人。”小姑必笑，嗟乎！小姑女中君子也。”(권만, 「先令人豊壤趙氏行錄」, 『江左集』 卷9, 『韓國文集叢刊』 卷209)

40 역시 아들이 쓴 서영수합(1753-1823)의 행장은 조선시대에 한문을 이용한 여성의 언어문자생활이 남성의(그리고 스스로의) 금지와 승인의 반복 속에 진행되는 과정을 잘 대변한다. “①총명하고 영특하며 책읽기를 좋아했다.(그러나) ②여자가 글을 잘하면 팔자가 좋지 못하다 하여 글을 배우지 못했다.(그러나) ③남자형제들의 어깨 너머로 서사(書史)를 섭렵했다.(그러나) ④文字는 부인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경계했다.(그러나) ⑤남편의 권유로 한시를 지었다.(그러나) ⑥직접 글자를 기록하는 일은 끝내 하지 않았다.(그러나) ⑦결에서 아들이 이를 기록해 시고(詩稿)를 엮었다.”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4-116쪽 참조)

견이 있었다.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셨으며 시비를 논할 때는 의리를 분명하게 가렸으니 독서한 사람도 이보다 나올 수 없었다. 성품이 간결하고 신중헌데다가 또 일찍이 가정교육에 젖어 있어 몸에는 나태한 모양이 없었고 입으로는 농담을 하지 않았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을 스스로 지키고 화려한 것을 물리쳤다. 어린아이들의 옷에는 비단을 쓰지 않았으며 거처의 그릇이나 물건은 다만 온전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되었다. (….) 자녀들을 기를 때는 지나치게 사랑해서 게으르게 내버려두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집안의 법도를 들어 조용히 타이르셨다. 불초한 우리가 비록 공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래나 여색, 재물이나 이익, 바둑이나 장기에 빠지지 않고 변변찮으나마 대과, 소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치고 경계하신 노력에 힘입은 바가 많다.<sup>41</sup>

이것은 이세백의 어머니 안동 김씨(1614~1677)의 행장이다. 안동 김씨는 김상헌의 손녀이며, 김광찬의 딸이다. 18세에 이정악의 부인이 되어 5남 3녀를 낳았다. 20세에 친정어머니가 죽자, 시집간 뒤지만 친정의 김수항, 김수증 등 일곱 동생을 잘 보살피며 친정동생들이 김씨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한다. 김수항이 묘지, 김수증이 제문, 김창협이 큰고모에게 올리는 제문 등을 썼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다는 말은 다분히 상투적이지만, 기억력이 좋았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농담을 잘 하지 않았다니, 진중한 성격에 말이 많지 않아도 잔소리는 많이 했는지 자녀들이 “노래나 여색, 재물이나 이익, 바둑이나 장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모 대상 글도 어머니 경우와 유사하다. 다음 자료가 그런 예이다.

○ 안씨에게 시집간 딸이 언문기록 한 통에 그 행적을 실어 놓을 것을 가져와서, 열행이 윤원에게 행장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sup>42</sup>

41 “自少聰明警敏，雖不學習文字，而雅有鑑識。多記故實，至論是非，痛析義理，雖讀書之人，無以過之。性質簡重，而又嘗濡染家庭，身不設惰靡之容，口不出戲嫚之言。勤儉自將，斥去浮華。童孺被服，不用綺紈，居處器用，只取完潔。(…) 鞠養諸子，未嘗昵於愛而任其縱情，每舉家法，諄諄諭之。諸子不肖，雖未有樹立，而猶幸不失身於聲色貨利博奕之間，而粗得成少大科名者，有得於先妣教飭之力為多焉。”(이세백, 『先妣安東金氏行狀』, 『雩沙集』卷9, 『韓國文集叢刊』卷146)

이 글은 박윤원이 장모 남양 홍씨(1697-1770)를 위해 쓴 행장이다. 박윤원은 안 종인의 아내인 처형이 언문으로 그 모친 남양 홍씨의 행적을 기록해 둔 것을 바탕으로 아내의 조언을 더하여 행장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심육이나 권만의 글은 좀 특이한 예고, 대개는 이세백처럼 자기 글(한문)에 여성의 언문을 직접 인용하진 않는다. 실재는 어쩐지 몰라도 말이다. 그래서 심육과 권만의 글이 여성 대상 묘지 등의 제작 중간단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여기서 딸과 아내 대상 글을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성의 언문을 직접 인용한 사례는 없다. 구술이 끼었다 해도, 남성 문인이 보기에 ‘번다함’을 줄인 간단한 것이고 부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7세기 김수항의 딸을 먼저 보면, 유인 김씨(1665~1680)는 아버지 김수항과 나성두의 딸인 어머니 안정 나씨가 지극히 사랑했던 외동딸이었다. 아들 많은 집에 외동딸이니 그 사랑이 유별났음은 짐작이 간다.<sup>43</sup> 7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이집에게 14세에 시집가 친정에만 있다가 1680년 경신환국으로 김수항이 유배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 16세의 나이로 요절하고<sup>44</sup> 그 때 낳은 딸도 며칠 후에 죽어 부모의 속을 더 상하게 했다.<sup>45</sup> 당대 내로라하는 거족이었던 김수항은 이 딸의 죽음을 애도하여 <망녀행적(亡女行蹟)>을 비롯해서 17세기 제문 중 가장 장문인 <제망녀문(祭亡女文)> 등 총 6편의 제문을 써서 남

42 “安氏婦以諺錄一通，載其行事，烈行屬胤源爲狀。”(박윤원, 「外姑孺人南陽洪氏行狀」, 『近齋集』 卷30, 『韓國文集叢刊』 卷250)

43 “重男輕女，人之恒情。而愛一女甚於男，亦古人之所不免也。汝母連舉七男而後始得汝，汝資性之卓絕又如許，族黨交賀，閭巷豔傳，有若稱慶於始生男之家。”(김수항, 「祭亡女文」, 『文谷集』 卷23, 『韓國文集叢刊』 卷133)

44 김수항은 딸 제문에서 딸이 자식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점쟁이의 말이 맞았다 하면서 애통해 한다. “及吾赴燕，問廉肆之善於卜者，謂汝命不永，期以三十有餘。又有母氣不勝子，生孕遽引災之語，吾甚愕然，置之不復省矣。到今發而視之，所謂生孕引災，其言果中矣，而以汝之年，較其所推筭，僅及其半。”(김수항, 「祭亡女文」, 『文谷集』 卷23, 『韓國文集叢刊』 卷133)

45 “汝既不幸而至此，血屬之遺于世，只有一女孩，而墮地纔三日而汝亡，汝亡纔六日而兒又化。天乎天乎！胡寧忍此？兒之始生，吾喜其眉目頗類汝。汝病既革，使乳婢抱送汝舅家，將瘞汝之葬，挈來吾家，調保鞠養，以期其成長。使其兒在者，雖不能承汝後祀，亦可以留代汝典刑也。若是則猶有可慰者，而今不然矣。”(김수항, 「祭亡女文」, 『文谷集』 卷23, 『韓國文集叢刊』 卷133)



졌다. 송시열은 그의 부탁을 받고 쓴 애사 〈문곡상공이씨녀애사(文谷相公李氏女哀辭)〉와 묘지명 〈유인김씨묘지명(孺人金氏墓誌銘并序)〉이 있다.

그런데 글이 많은 데 비해 구술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다. 구술의 특성상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고 그대로가 아닐 확률도 매우 높다.

○ 그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잊지 않았다. (...) 형제들이 그 총명함을 사랑하여 시서(詩書)를 가르쳐주려 하자 사양하며 즐겨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공에만 힘을 썼다. 그러나 고인들의 가언과 선행에 관해 이야기하면 문득 귀를 쫓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sup>46</sup>

이 인용문은 김창협이 쓴 누이의 애사의 일부이다. 누이가 생전에 듣기 좋아했다는 ‘고인들의 가언과 선행’이란 곧 소학을 말한다. 소학이 고인의 가언과 선행으로 채워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창협은 누이도 한자를 모르지는 않는 듯하다. 10세에 『열녀전』을 언해하겠다고 열심이었다니 말이다.<sup>47</sup> 여성들이 남자형제의 글 읽는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는 기록은 많이 보인다.<sup>48</sup> 듣는 것도 읽는 것과 다른, 구술문화의 일종이다. 이는 한문과 구술의 사이를 생각하게 한다.

○ 서부인이 언문으로 딸의 행적을 기록해 주었는데 그 행장에 이렇게 썼다.<sup>49</sup>

46 “其聰明絕人，耳目所涉，雖細事亦不忘。(…) 諸兄弟愛其聰明，嘗欲授以詩書，輒辭謝不肯，而顧獨力於女紅縫紉之事。然間爲道古人嘉言善行，輒壺壺樂聞也。”(김창협, 「亡妹哀辭」, 『農巖集』 卷30, 『韓國文集叢刊』 卷162)

47 “十歲，公購得列女傳以授之，以爲得之之晚翻以此云，夙夜玩繹焉。”(송시열, 「孺人金氏墓誌銘并序」, 『宋子大全』 卷187, 『韓國文集叢刊』 卷114)

48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我學古書，爾必樂聽，我習古禮，爾必忻慕。”(이휘일, 「祭金氏妹文」, 『存齋集』 卷5, 『韓國文集叢刊』 卷124)

49 “徐夫人以諺狀其行來，其狀曰。”(유한준, 「子婦孺人吳氏墓誌銘 并序 甲午」, 『自著』 卷24, 『韓國文集叢刊』 卷249)

이것은 유한준이 며느리에 대해 쓴 묘지명의 일부이다. 망자 수양 오씨 (1752~1773)는 오재륜의 딸로서 유한준의 장남인 유만주에게 시집와서 6년 만에 젓병으로 죽었다. 친정에서 오씨 부인의 어머니가 언문으로 딸의 행장을 써 주었고, 유한준이 이를 인용해 며느리의 묘지를 완성했다. 그것이 직접인용인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여성이 일찍 죽는 경우 친정 여성들이 언문으로 글을 써주는 예가 종종 있다.

여성생활사자료집에 아내 관련 제문, 행장 등은 워낙 많지만 여기서는 그 매너리즘화에 비판적이었던 심노승을 먼저 본다. 여성생활사자료집이 아닌 심노승의 다른 글을 통해 그 아내의 생전 구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아내가 나에게 던지시 말하기를 “제가 다른 집 지아비들을 살펴보니 꽃과 나무에 심취한 이가 꽤나 많더군요. 심지어는 부인의 방을 뒤져 비녀와 팔찌를 찾아서는 그걸 팔아 돈을 마련하는 이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와는 반대로, 집도 헤어지고 꽃과 나무도 황폐해지게 내버려 두십니까? 꽃과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면 비록 집이 남아지더라도 한번 쯤 볼만한 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sup>50</sup>

이것은 심노승의 『新山種樹記』의 일부이다. 아내의 편찬에 심노승의 답은, 그 집에서 오래 살 계획이 없고 남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리할 생각은 없다는 것, 늙기 전에 고향에 가서 오두막을 지어 아내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것이었다.<sup>51</sup> 이 작품은 심노승이 1793년 아내를 사별하고 1년 후 아내 무덤이 있는 선산에 나무를 심게 된 내력을 기술한 ‘記’<sup>52</sup>이다. 심노승과 아내의 대화를 통해 사족 여성의

50 “君嘗謂余曰：“吾見人家 丈夫，多癖花樹，或有入室索釵釧買之。子何反是，以廬之弊，花樹亦廢？廬雖弊，花樹不廢，亦可以爲廬觀也。””(김영진, 2001. 236쪽.)

51 “余曰：“苟治其花樹，廬亦可治。但吾於此無久計，何必費心爲他人觀也？未老與君歸故山，結廬植花樹，取實而充籩 豆·供甘旨，看花而相與娛白首，吾計在此。”君笑嬉嬉。”(김영진, 2001. 236쪽)

52 박다원은 심노승이 ‘記’ 문체를 통해서 아내와의 일화를 사실적으로 기록한다고 했다.(박다원, 2018, 339쪽)

구술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흔히 제문이나 묘지문 등에 여성이 남편을 권면하고 ‘지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심노송 역시 아내를 ‘지기’라고 표현하고 있다.<sup>53</sup> 다른 사람의 제문이나 묘지명 등에도 부부사이에 ‘지기’란 표현은 흔하다.

○ 심지어 영산에 이르기까지 셈이 가장 어려운 부분도 한 번 들으면 문득 모두 깨달았다. 익보가 일찍이 적통을 계승하는 둘째 아들이 그 할머니의 복을 입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복을 입을 수 있는지 물으니, 유인이 말하길, “적통을 계승하는 자는 시마로 그 어머니의 복을 낮추어 입으니, 어머니도 감히 그 아들을 자식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전하는 것이 이미 끊어져 이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그 손자에 이르러 어찌 다시 이어서 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그 식견이 높은 것이 이와 같았다.<sup>54</sup>

이 글의 망자 유인 민씨(1692-1725)는 민계수의 딸이자 조겸빈의 아내이다. 박필주는 민계수와 함께 공부하였고, 또 유인 민씨의 아들이 박필주의 문인이다. 박필주는 유인 민씨의 남편이 쓴 행장을 토대로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 인용문은 유인 민씨가 복상(服喪) 제도에도 밝았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복상 문제는 워낙 복잡하니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았겠지만, 사족 여성의 말이 이런 문제에도 끼어들었음을 알게 한다. 다음 자료를 보자.

○ 내가 하루는 우연히 송나라 때 명신의 사적을 생각하다가 능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인이 매우 상세하게 외우고 있었다. 또

53 “吾於子夫婦而友，友而知己，今子之死，吾遂併失，痛而叩盆，哭而寢門，哀而斷絃。”(심노송, 「亡室大祥前一日告文」, 『孝田散稿』 6冊)

54 “禮服深衣欄衫之屬，亦都悉具制度，不失分寸。至於影算，算之最難者，而一聞輒即通曉。益甫嘗以承嫡者之第二子，爲其祖母服承重服當否爲問，則孺人曰：“承嫡者以緦麻降服其母，則母不敢子其子。中間傳序既絕不續，至其孫更有何重之可承而爲之服乎？”其識見之高如此。”(박필주, 「孺人閔氏墓誌銘」, 『黎湖集』 卷27, 『韓國文集叢刊』 卷197)

조정에서 일어난 사화(士禍)의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서 때때로 나와 토론하였다. 그래서 내가 자못 이상하게 여겼는데, 뒤에 그 상자를 보니 옛 책을 번역해서 베껴놓은 것이 쌓여서 두루마리와 책을 이루었다. (….) 또 그 종고모인 송요화의 아내는 세상에서 여사라고 일컬었다. <자경편(自警編)>을 지었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니, 유인이 가져다가 자리 오른편에 두고는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익혔다.<sup>55</sup>

이 글은 박윤원이 외아들의 혼인을 앞두고 죽은 아내 유인 안동 김씨(1734-1781)를 위해 쓴 행장이다. 인용문에서 보듯 여성이 남편이나 자손의 역사나 책 관련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흔하다. 사화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더니 부부간 대화의 주제의 폭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종고모’란 2장에서 언급한 김호연재이다. 망자가 한문으로 읽었는지 언문으로 읽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 4 여성 대상 기록의 정형성과 구술성

주지하듯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이나 행록, 유사, 묘지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여성생활사자료집에 실린 글도 대부분 그렇다. 순서는 조금씩 달라도 대체로 이렇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제문이 행장과 유사해지고 계녀서에 가까워지는 경향은 이미 지적되었다.

- ㉠ 고인과의 친분이나 글 부탁한 사람과의 친분
- ㉡ 고인 생전의 모습
  - ㉢ 부모에게 효행(병수발 및 제사 받들기)

55 “然余一日偶思宋時名臣事蹟，有不能箕者，孺人誦道之甚熟。又詳於國朝士禍顛末，時與余論說。余頗怪之，後見其篋，翻寫古書者，積成軸帙矣 (….) 且其從姑母宋公堯和夫人，世稱女士。著自警編，言正心自修之道，孺人取而置諸座右，朝夕誦習。”(박윤원, 「亡室行狀」, 『近齋集』卷29, 『韓國文集叢刊』卷250)

- ㉠ 시부모에게 효행(병수발 및 제사 받들기)
- ㉡ 남편을 권면
- ㉢ 자녀들 교육
- ㉣ 비복 다스리기 및 이웃에게 은혜 베풀기
- ㉤ 고인 조상의 위대함
- ㉥ 고인의 죽음
- ㉦ 자손

여기서 고인 생전의 모습이 계녀서와 많이 닮았다. 망인의 실재와 상관없이, 이에 입각해 쓰는 것은 분명 매너리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계녀서나 행장 등이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부덕을 강요하기 위함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술문화의 잔존이란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sup>56</sup>

○ 상이 나자 원근의 종들이 모두 황급히 곡을 하기를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하였다. 문상을 온 나그네가 탄식하며 말하길, “평일에 은혜를 쌓지 않았다면 이 어찌 곁으로 그러한 것이겠는가?”하고 길 가는 사람들 또한 마음 아파하였다.<sup>57</sup>

○ 아내가 죽자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종들도 목이 메어 곡을 하며 모두 어머니를 잃은 듯하였다.<sup>58</sup>

56 표절의 경우 전통사회와 현대의 기준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사회의 기준으로 표절을 옹호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단지 표절이란 단어에도 역사가 있고, 문자문화에서 ‘신의’와 ‘신어’ 즉 독창성이 더 강조되긴 하지만, 과거시험 등에서 경전을 이용한 표절이 많이 행해졌으며, 여하튼 표절은 하층 선비의 행위로 여겨졌다고 한다.(이혜순, 「표절에 관한 전통적 논의들」, 이혜순·정하영 공편,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9-32쪽.)

57 “及以喪歸, 遠近婢僕舉遑遑號哭, 若喪父母. 客護喪者歎曰: “非平日積恩, 此豈外貌爲者哉?” 行路亦爲之傷嗟.”(권두경, 「先妣孺人金氏言行記」, 『蒼雪齋集』卷16, 『韓國文集叢刊』卷169)

58 “故既歿, 親疎皆同涕, 僕隸失聲哭, 壹如其母.”(임희성, 「亡室淑人宜寧南氏墓誌」, 『在潤集』卷3, 『韓國文集叢刊』卷230)

이상에서 보듯 “원근의 종들이 모두 황급히 곡을 하기를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하였다”는 말은 다른 글에서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다. ‘종이나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죽자 부모, 어머니를 잃은 듯’ 울었다는 것이다. 그 세부적인 차이가 문자문화의 영향일 것이다. 현대에 인정하는 문인의 ‘독창성’은 좀 더 문자문화에 가깝다.

매너리즘의 비판을 받는 여성 대상 묘지 등은 한문을 이용한 글쓰기가 문자 문화라 해도 구술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 탓일 수 있다.<sup>59</sup> 그 ‘정형성’이 오히려 구술문화의 영향이란 말이다. 글을 정형화하면 기억이 용이해진다.<sup>60</sup> 이는 단지 몇 구절의 유사함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인지 모른다. 글의 틀을 정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그리고 문자문화에도 필사문화와 인쇄문화의 차이는 크다고 한다. 17-18세기 조선은 보편적으로 인쇄보다는 필사문화에 더 가깝다. 한문과 언문은 같은 문자이지만, 한문은 보다 문자문화에 가깝고 언문은 구술문화에 더 가깝다. 현대의 기준으로 한문과 언문을 다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 5 맺음말

이상 여성생활사자료집을 중심으로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을 살폈다. 김수항의 딸과 심노승의 아내 관련 글을 함께 다루었지만, 주로 어머니 대상 행장 등을 분석하였다. 여성의 말이 행장 등에 한문 문자로 고착될 때는 부덕이나 ‘번다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형된다. 그런데 언문은 문자문화이면서 구술문화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에 관한 상투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오히려 정형

5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나수호는 이하 논문에서 맥루한, 옹, 하베록, 구디, 피네간의 견해를 살폈다. 특히 뒤로 갈수록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공존함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본고에서 주로 인용한 옹도 맥루한의 영향을 받지만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넘어갈 때 단절보다는 일종의 보강이 있었다고 했다.(나수호,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초기 탐구에 대한 소고」, 『口碑文學研究』 제38권, 한국구비문학회, 2014.)

60 정형구나 관용표현이 구술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표현의 정형화는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윌터 J. 옹, 앞의 책, 45쪽, 59쪽.)

화를 추구하는 구술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했다. 제문이나 행장 등 한문은 문자문화에 속하나, 기억하기 쉬운 그 틀과 내용은 구술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문자에서는 여성의 경우 한문보다 언문이 우세한 것이 맞지만, 조선에서 언문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점, 구술의 비중이 더 큰 것이 사실이란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현대인, 특히 글에 익숙한 현대 연구자들은 문자나 쓰기를 당연시 하지만, 과거에 한문에 익숙지 않은 집단에겐 언문이나 말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일상에서 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으나, 과거 아내로서 남편을 권면할 때 했던 말이 남성의 윤색을 거쳐 행장 등에 남아 있다. 한문을 알아도 남성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언문을 쓰거나 말이 우선이었다.

여성생활사자료집에서 종종 지적되는 여성의 식견의 원천은 한문, 언문, 구술의 듣기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식견의 원천이란 방식에서는 비슷한 것 같다. 한문도 언문도 귀로 듣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었다니, 책을 통한 교양도 결국 구술의 듣기를 통해서이다. 여성의 경우 더욱, 책을 읽기도 듣기가 주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대상 행장 등에 자주 등장하는 공식구를 구술문화의 정형구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경우 구술이 언문을 거쳐 한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데, 한문에 깃든 구술성이 무엇인지, 남성 대상 행장 등은 어떠한지, 본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경미·김기림·이경하·조혜란·황수연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2006, 보고서, 1-449쪽.

정형지·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2006, 보고서, 1-480쪽.

조혜란·이경하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2006, 보고서, 1-492쪽.

황수연·김기림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2006, 보고서, 1-442쪽.

강성숙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서, 2009, 1-643쪽.

\_\_\_\_\_,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5』, 보고서, 2009, 1-579쪽.

김경미·김기림·김현미·조혜란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서, 2009, 1-843쪽.

김남이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보고서, 2009, 1-571쪽.

\_\_\_\_\_,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서, 2009, 1-566쪽.

서경희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보고서, 2009, 1-674쪽.

이경하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09, 1-889쪽.

황수연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09, 1-739쪽.

#### 단행본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파주: 한길사, 2011, 12쪽.

심노승,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1-310쪽.

이혜순·정하영 공편,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9-32쪽.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2-92쪽.

#### 논문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50쪽.

나수호,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초기 탐구에 대한 소고」, 『口碑文學研究』 제38권, 한국구비문학회, 2014, 29-63쪽.

박다원, 「심노승 도망문(悼亡文)에 나타난 죽음의 수용 양상과 그 의의」, 『국학연구론총』 제22권, 태민국학연구원, 2018, 317-343쪽.

박무영, 「18세기 祭亡室文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제32권,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쪽.

\_\_\_\_\_, 「『호연지유고』와 18세기 여성문학」, 『열상고전연구』 제16권, 溯上古典研究會, 2002, 63-89쪽.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45권,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06, 261-321쪽.



- \_\_\_\_\_,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제97권, 진단학회, 2004, 139-187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0-158쪽.
- 이경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정체성과 지구화 시대의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9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355-388쪽.
- \_\_\_\_\_,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31-55쪽.
- \_\_\_\_\_,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제140권, 국어국문학회, 2005, 101-120쪽.
- \_\_\_\_\_,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58쪽.
- 이종목,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제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59-89쪽.
- 정우봉,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巾車志)』 연구(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67-197쪽.
- \_\_\_\_\_, 「심노승의 『南遷日錄(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제52권, 한국한문학회, 2013, 261-305쪽.
- 최기숙,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書·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제176권, 국어국문학회, 2016, 115-149쪽.
- \_\_\_\_\_, 「18세기 여성 대상 애제문과 비지문을 통해 본 한문의 “문자적, 구술적” 포용성」, 『古典文學研究』 제48권, 한국고전문학회, 2015, 259-289쪽.
- 최원오, 「"구술성"의 문화사적 기여와 인문학적 가치」, 『韓國漢文學研究』 제57권, 한국한문학회, 2015, 65-101쪽.

## Abstract

The upper classes women's orality in the 17th-18th Joseon Korea

Lee, Kyungha

This thesis's topic is consider aspect of orality of the upper classes women in the 17th-18th Joseon Korea. Hereby I raise published "collection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s practical use and look furtively possibility of microscopic lives history study of traditional korean women. And I searched aspect of orality divide the upper classes women into three groups, that is daughter, wife, mother in "collection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And this thesis explored the Korean script was a kind of spoken language, that is between literacy and orality.

Kew words: collection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Chinese writing, the Korean script, spoken language, Orality, Literacy.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